

##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04.01~25.04.30)

### □ 2025년도 선도적 관민연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결과 [4/1]

- 국토교통성에서는 지자체 등의 선도적인 관민연계사업 도입과 관련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적 관민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선도적 관민연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성이 제시한 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응모를 요구하는 대처(※1)에 대해 지자체 등이 선도적인 관민연계사업(※2)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위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임
- 지자체 등이 응모를 요구하는 대처는 크게 ① 전략적인 인프라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체제 확보, ② 스몰 컨세션 추진의 2가지로 구성됨
- 「전략적인 인프라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체제 확보」는 인프라를 지탱하는 지자체의 직원 부족이나 노후화가 진행되는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갱신이라고 하는 지역 과제에 대응하여, 민간 노하우, 신기술의 활용, 업무의 디지털화, DX 등을 통해 인프라 전반의 분야에서 일체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처나, 마을 만들기 계획을 근거로 한 지역 장래상에 입각한 인프라 갱신이나 집약, 재편을 진행하는 대응을 말함
- 「스몰 컨세션 추진」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폐교 등의 빈 시설이나 지자체가 소유한 오래된 민가 등의 빈집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창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한 소규모 PPP/PFI사업을 통해 지역 과제 해결이나 지역 가치 향상으로 연결하는 대응을 말함
- 「선도적인 관민연계사업」은 사업의 계획, 방법이나 관민 연계를 실시하는 대상 시설 등에 선도성, 시범성이 있는 것 또는 지자체의 노하우 축적이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조사 진행 방식에 선도성, 시범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
- 상기의 조건에 만족하는 사업인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심사하여, 사업방법 검토, 연계사업 도입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 정비 등의 비용에 대해 건당 2,000만 엔 까지 보조함
-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았으며, 국토교통성은 42건의 응모 가운데 25건을 보조 대상으로 선정함

### □ 공터 적정관리 및 이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4/1]

- 국토교통성은 4월 1일 공터 적정관리 및 이활용의 지침이 되는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음
- 가이드라인에는 △공터의 현황, △ 공터의 적정관리와 이활용에 관한 대처, △공터에 관한 조례, △ 활용가능한 각종 제도 등을 담고 있음
- 공터의 적정관리와 이활용에 관한 대처에서는 지자체 등이 공터의 관리, 이활용에 임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지역을 연계한 담당자 확보나 농원, 채소밭, 녹지, 광장 등으로 전환 등에 대해 다수의 선진적인 대처를 소개하고,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에서는 조례에 기초한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정된 공터에 관한 조례에 대해 관리부전 공터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음. 특히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한 법적 정리와 실제 운용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 2025년도 우량 목조 건축물 등 정비추진사업 제안 모집 개시 [4/1]

- 국토교통성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대규모 목조 건축물 보급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와 목조화에 관련된 선도적인 설계·시공기술이 도입되는 프로젝트의 실시에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급형과 선도형의 두 가지 트랙이 있음
  - 보급형은 ① 주요구조물에 목재를 일정 이상 사용할 것, ② 일정 규모 이상일 것(공동주택/오피스: 4층 이상, 비주택(오피스 제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초과), ③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용도, ④ 목조건축물의 보급 계발에 대한 대치가 이루어질 것, ⑤ ZEH·ZEB(※)수준을 만족할 것, ⑥ 재조림 또는 재이용에 이바지하는 대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조사설계비는 목조화에 관한 비용의 1/2이내, 건설공사비는 목조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1/3이내 또는 건설공사비의 7%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조상한액은 2억 엔임
  - 선도형은 ① 보급형 조건을 만족할 것, ② 내화성·구조 등에서 선도성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며, 국토교통성 유식자위원회에서 선도성을 평가한다. 보조율은 설계조사비는 목조화에 관한 비용의 1/2이내, 건설공사비는 목조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1/2이내 또는 건설공사비의 10%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조상한액은 3억 엔임
- ※ ZEH(Net Zero Energy House), ZEB(Net Zero Energy Building) :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을 0 이하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 환경성의 인증

□ 스몰 컨세션 추진을 위해 선정된 7개 지자체를 서포트 [4/2]

- 정부는 관민이 연계하여 유휴 공적 시설 활용을 도모하는 스몰 컨세션을 추진하여 지역 과제 해결과 지역 가치 향상 등 지방 창생에 임하고 있음
- 이번에 지자체가 스몰 컨세션을 원활하게 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과제 해결을 서포트하는 전문가 파견을 진행하는 「스몰 컨세션 형성 추진 사업」에 대해 유식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음
- 7개 지자체는 2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전문가를 파견함. 제1그룹은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하며, 카나가와현 마쓰루쵸, 아이치현 안조시, 효고현 히메지시, 나라현 나라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2그룹은 2025년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홋카이도 이케다쵸,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쿠마모토현 나카스쵸가 포함되어 있음
- 국토교통성은 7개 지자체에 대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하는 전문가 공모를 개시함. 공모참가자격은 기존 건축물의 활용이나 PPP/PFI에 대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획 경쟁 설명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임
- 해당 전문가는 구역 비전 검토, 시설 현황 조사, 시장 조사, 사업 수법 검토의 일부를 지원함

□ 점검지원기술 성능 카탈로그 확충 [4/10]

- 국토교통성에서는 도로 구조물 점검의 효율화,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점검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정리한 「점검 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를 작성하고 있음. 점검 지원 기술 성능 카탈로그는 국가가 정한 표준항목에 대한 성능 값을 개발자에게 요구하고, 국가 관리시설 등에서 기술을 검증한 결과를 카탈로그 형식으로 정리한 것임
- 2022년도부터 교량·터널, 2023년도부터 포장, 2025년도부터 도로 순시를 포함한 직할국도의 점검에서 특정 항목에 대해 점검 지원 기술 활용을 원칙화(점검 지원 기술 활용을 통해 효율화나 업무 품질 확보를 도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 외로 함.)하고 있음

- 2025년 4월 10일 기준 카탈로그는 △ 교량·터널·토공, △ 포장, △ 도로순시의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교량·터널·토공 분야에서는 이미지 측정 130개, 비파괴 검사 77개, 측정 및 모니터링 92개, 데이터 수집·통신 4개 기술이 게재되어 있음. 포장 분야에서는 균열률, IRI에 45개 기술이 게재되어 있음. 도로 순시 분야에서는 포트홀, 구획선 마모에 27개 기술이 게재되어 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2월분) [4/11]**

- 2025년 2월 수주총액은 9조 2,695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여 11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6조 314억 엔(전년동월대비 6.0% 증가)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2,381억 엔(전년동월대비 12.4% 증가)으로 11개월 연속 증가함
- 원도급 수주액(6조 314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6,744억 엔(전년동월대비 4.8%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3,570억 엔(전년동월대비 6.4%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6조 314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5,458억 엔(전년동월대비 1.4% 감소, 8개월 만의 감소)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3조 6,956억 엔(전년동월대비 3.0%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7,900 억엔(전년동월대비 47.3%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임

□ **2025년도 스마트시티 실장화 지원 사업 선정 [4/11]**

- 선진적 기술과 관민 데이터를 활용하고,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활동이나 도시 인프라 관리 및 활용을 고도화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하여 2018년부터 각 지구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대처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 타입은 국가가 정하는 특정 정책 테마에 맞추어 실행 계획에 기초한 첨단적 기술 등을 활용한 선진적인 도시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스마트시티 실장 타입」과 실행계획에 근거하는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선진적인 도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서비스 실장 타입」의 두 가지가 있음. 민간사업자, 지자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도시/지역의 비전, 대처내용을 기재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컨소시엄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을 것을 기본조건으로 함
- 전략적 스마트시티 실장 타입은 실행계획에 기초한 컨소시엄 부담액이 국가의 보조액보다 커야 하며, 5,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도시서비스 실장 타입은 실행계획에 기초한 컨소시엄 부담액이 국가의 보조액보다 커야 하며, 3,5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이번에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이 연계하여 합동으로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선진적인 도시 서비스의 실장화를 진행하는 8지구(전략적 스마트시티 실장 타입 :5건, 도시서비스 실장 타입: 3건)의 실증 사업 지원을 결정함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4/11]**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카지마 도로 주식회사 (도쿄도 소재)에 대해 2025년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간 지명정지 처분을 내림
- 카지마 도로 주식회사는 국토교통성 호쿠리쿠지방정비국, 추부지방정비국, 킨키지방정비국, 추우고쿠지방정비국, 큐슈지방정비국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아스팔트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아스팔트합재와 다른 재생골재가 혼입된 아스팔트합재를 사용하였음. 헤딩 공사들의 계약도서(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등)에서 신규골재에 의한 아스팔트합재(신규 아스팔트합재)의 사용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국토교통성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고, 재생골재를 포함한 아스팔트합재(재생 아스팔트 합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업무에 관한 부정불성실이 있었고, 계약 상대방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조치요령 별표 제2 제15호(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제15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 2025년도 관민 연계 기반정비추진조사비 제2회 안건 모집 [4/16]

- 본 사업은 지역 경제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기반정비나 광역적인 지역 전략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해 기반정비 구상단계에서 사업 실시단계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나 개략 설계 등 검토에 필요한 경비를 조치하는 사업임
- 지자체가 민간사업 활동과 일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뛰어난 효과 발현이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국토교통성 소관의 기반 정비 사업(도로, 해안, 하천, 항만, 도시공원, 공항 등의 공공 토목 시설)의 사업화를 위한 검토 경비를 대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① 기반정비에 관련된 과제 정리나 기능 검토, 개략 설계 등 시설 정비 내용에 관한 조사, ② PPP/PFI 도입 가능성 검토(PPP/PFI방법 선정, 관민 업무분담, VFM 산정 등) 등 ①에서 조사한 시설 정비, 운영 수법에 관한 조사를 사업내용으로 함
- 본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비는 조사위탁비 및 측량설계비로 하며, 조사에 따른 사무비(여비, 인건비, 인쇄제본비) 등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사업에 따른 비용에 대한 보조율은 50% 이내이며, 지자체를 배분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사업예산은 3억 3100만 원을 한도로 함

#### □ 건설시장 정비추진 사업비 보조금 모집 개시 [4/18]

- 지역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 ICT를 활용한 재해 발생 시의 응급 복구 대응력 강화와 건설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시장 정비 추진 사업비 보조금」에 대해 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모집을 개시함
- 「건설시장 정비 추진 사업비 보조금」의 집행단체는 일반사단법인 전국건설업협회이며, 예산액은 2억 4천만 원임. 이번 응모기간은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임
-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상정한 작업원의 기술 습득 및 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ICT기기 도입에 관한 비용을 보조함. ICT기기에는 웨어러블카메라, ICT중장비, 스마트폰, 드론, 원격조종장치, 파워어시스트 슈트, 웹캠, 사족보행로봇, 레이저스캐너, 태블릿이 포함됨. 해당 장비에 대해 기준 일자(2/13) 이후에 구입하는 경우에 간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026년 2월 13일까지 관련 ICT 기기를 구입하고, 해당 ICT 기기를 활용하여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됨. 전국건설업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목적에 따라 지역에서 많은 숫자의 기업이 공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우선시 하며, 참가 기업 숫자가 많을수록 우선 채택함
- 보조액은 경비 가운데 전국건설업협회가 인정한 금액에 1/2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함

- 본 간접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ICT기기 가운데 취득가액이 50만 엔 이상인 것은 전국건설업 협회가 정하는 제한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지 않은 사용, 양도, 교환, 대부, 담보 제공, 폐기를 할 수 없음. 기간 내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건설업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보조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국토교통성 토목공사의 탈탄소 액션 플랜 공표 [4/21]

- 품확법(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등의 정부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직할공사)가 탈탄소화를 위해 선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대응을 견인하고자 함
- 2024년 6월 품확법이 개정되어, 공공공사에서는 경제성을 배려하면서 탈탄소화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재 등의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됨
- 이번에 국토교통성이 직할 토목공사에서 적용하는 탈탄소 액션 플랜은 ① 건설기계의 탈탄소화, ② 콘크리트의 탈탄소화, ③ 기타 건설기술의 탈탄소화의 3가지 메인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건설기계의 탈탄소화는 건설기계의 연비성능 향상을 촉진하면서, 2030년을 목표로 직할공사에서 연비기준을 만족한 유압굴삭기 사용을 원칙화함. 또한 전동건설기계(GX건설기계)의 연비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보급을 촉진함. 차세대 연료 등을 활용한 시범 공사 등을 실시하여 활용을 촉진함
- ② 콘크리트 제조 시에 CO2배출량이 적은 원료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CO2를 콘크리트에 고정, 흡수하는 기술에 대해 서플라이 체인, 비용대비효과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경우에 활용함
- ③ 기타 건설기술의 탈탄소화는 탈탄소 재료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여, 삭감효과 향상과 가격절감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 보급 촉진의 선순환을 구축함